



2/4분기 경제지표 양호, 경착륙 우려 해소

왕양비 연구원

- 7월 13일 발표된 2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(GDP)이 지난해 2/4분기와 금년 1/4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, 통화당국이 시행한 일련의 긴축정책을 감안할 때 9%대의 양호한 성장을 유지함.
 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2/4분기 중국경제가 전년동기에 비해 9.5% 성장했으며, 상반기 평균으로는 9.6% 성장함.
 - 금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/4분기 10.3%, 올 1/4분기 9.7%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,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는 달리 둔화폭이 크지는 않음.

- 한편,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,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.
 - 산업생산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, 6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5.1% 증가하여 2010년 5월 이래 최고치에 달했으며, 이에 상반기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.3% 증가함.
 - 소매판매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올해 들어 매달 전월대비 1p%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, 6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대비 17.7% 증가하여 5월보다 1.4p% 상승함.
 - 올 상반기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구매력이 전년보다 7.6% 상승한 것이 소매판매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됨.
 - 올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.6% 증가했지만, 해당 증가율은 올 4~5월 전월대비 2.41%p, 0.17%p 상승 후, 6월 들어 1.04%p 하락으로 둔화되고 있어 통화긴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중국경제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-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둔화를 감내할 수 있지만, 가파른 경제위축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임.
-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경착륙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.
- 올 2/4분기 중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으로 중국정부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(WSJ, 화선 재경 7/13 등)